

[포토] 로봇저널리즘 엠로보(대표 안상선),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참가

김미아 기자 | 승인 2019.05.24 06:20

[포토] 로봇저널리즘 엠로보(대표 안상선),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참가



엠로보(대표 안상선)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3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 참가했다.

엠로보는 지난 2016년 매경미디어그룹이 출범한 사내 벤처 1호다.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저널리즘을 바탕으로 금융사와 개인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텍스트 기사뿐 아니라 그림과 도표 작성도 가능하며 영어·중국어 기사도 작성한다.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워크 2019'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운데)가 안상선 엠로보 대표(오른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블록체인밸리]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센터장 정유신)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정책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과 국내외 VC와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의 투자설명회(IR), 해외 진출 지원 상담회 등이 마련됐다.

청춘데이(24일)에는 금융위가 시행 중인 금융 샌드박스를 핀테크 스타트업과 대학생 등에 소개하고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패밀리데이(25일)에는 어린이들에게 핀테크 정책을 홍보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놀이터를 운영하고 각종 핀테크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IBK기업은행, KB금융그룹,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비자(VISA),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비씨카드, 삼성, 신한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한화 등 국내외 주요 금융사들이 핀테크관을 마련하고뱅크샐러드, 삼성전자, 에이젠글로벌, 와디즈, 워닝아이, 카카오페이,페이콧, 피노텍, 핀트, 한국NFC 등 10곳에서 핀테크 체험관을 꾸렸다.

이 외에도 △P2P 분야에서 데일리펀딩, 어니스트펀드, 피플펀드컴퍼니, 핀틀 △금융 플랫폼 분야에서 디렉셔널, 마이뱅크, 코스콤, 팀윙크, 페르소나시스템, 핀다, 핀테크, 한국신용정보원 △로보 어드바이저 분야에서 씽크풀, 에스비씨엔, 엠로보, 과라소프트 △인슈어테크 분야에서 금융감독원, 스몰티켓, 에임스, 투비콘 △지급/결제 분야에서 13마일, 금융보안원, 더페이, 모바일통, 우디, 인포소닉, 페이민트, 페이플 △자산관리 분야에서 브로콜리, 부자애플컴퍼니, 빅밸류, 집펀드가 부스에 참여했다.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Korea Fintech Week 2019)' 개막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매트 딜 비자 글로벌 대표, 더글라스페이건 안트 파이낸셜 대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사진=금융위원회]

저작권자 © 블록체인밸리::No.1 Korea Blockchain & Fintech Medi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아 기자